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19:00 (청년)	
예비자	교리	토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드레아	3월 17일(일), 11:40	강당
사목회의	3월 21일(목), 19:40	강당
성체분배자회	3월 24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조배실

● 사순 특강 (수요일 저녁 20:00)

일자	제목	강사
3월 20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시기 (참여, 선교)	김영선 루치아 수녀님 (마리아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 성주간 전례 일정 안내

3월 28일(목)	저녁 8시	주님 만찬 미사
3월 29일(금) 금욕, 금식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저녁 8시	주님 수난 예식
	※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3월 30일(토)	저녁 8시	부활 성야 미사 (사순 실천 봉헌 봉투 제출)
3월 31일(일) 부활 대축일	06:30, 10:30(교중) ※ 오후 12시, 오후 7시, 주일학교, 중고등부 미사는 없습니다.	

- * 성상일(3월28일~30일)동안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부활절 행사 관계로 3월 30일(토) 오후 1시부터 3월 31일(일) 오후 5시까지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2월 전입)

- 일시: 3월 24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주임신부님 사무실

※ 각 구역·반장님은 연락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3구역 3반	김민영	아나다시아	의정부교구/다산
12구역 5반	박은경	라파엘라	춘천교구/주문진
18구역 1반	전예림	로사	청주교구/분평동
18구역 1반	이찬필	안셀모	대구대교구/두산
18구역 2반	김인근	스테파노	서울대교구/잠실
21구역 2반	황대찬	안셀모	서울대교구/논현동
22구역 4반	정석호	요한	수원교구/송탄

●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저녁(18:2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십자가의 길' 담당 구역 *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24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3/25(월)		3/26(화)	3/27(수)	
5구역		6구역	7구역	

● 사순 집중판공성사

- 3월 22일(금), 19:40, 고해소

● 알림

- 오늘 오후 2시에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가 성전에서 있습니다.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3월 24일(일)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3월 31일(일) 교중미사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3/2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2구역	청소	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3월 06일 ~ 12일)

교무금	7,818,000 원
주일헌금	5,407,000 원
서영준10만원 이은용10만원 박정숙10만원 심점순 5만원 정봉순 5만원 이길자10만원	
김순애 5만원 정종국 6만원 김영숙 3만원 이승문 5만원 옥윤필10만원 강영숙 5만원 안지영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3/17	이인옥	심재순	신종구 윤상기 김성해
3/24	권태희	이응남	도현만 최웅조 민옥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3/17	최창열	박용환	김광수	옥윤필 이운영
3/24	오광운	하재민	최승일	장인홍 최창열

화답송



하느님 제 마음을 - 깨닫게 하소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III. 세상의 신비

76. 유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창조’는 자연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계획, 곧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은 인간이 분석, 이해, 통제하는 체계로 여겨지는 반면에, 창조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주신 선물로, 우리가 함께 보편적 친교를 이루도록 요청하는 사랑으로 비추어진 실재로 이해될 뿐입니다.

77.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 만들어졌네.” 이는 세상이 결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지 혼돈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며, 세상은 자의적인 전능, 곧 힘의 과시나 자기 과시의 욕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근본적 동력입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 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각자의 자리를 세상에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함의 대상입니다. 가장 하찮은 것의 덧없는 생명조차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며, 아주 감싼 살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대 바실리오 성인은 창조주를 “무한한 선”으로 묘사하고, 단테 알리기에리는 “태양과 별을 움직이는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자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78. 또한 유다 -그리스도교의 사유는 자연의 탈신화화를 이끌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언제나 찬미하면서도 자연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지는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리하여 자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자연을 이처럼 새롭게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일부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 잠재력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의 가치와 취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깨닫는다면, 무한한 물질적 발전이라는 근거 없는 현대 신화를 때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보호에 맡기신 취약한 세상은 우리의 힘을 이끌고 발전시키고 제한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을 것을 요청합니다.